

자람테크놀로지, 청약경쟁률 1,030.65대 1 기록...3월 7일 코스닥 입성

- ▶ 청약 건수 123,578건 신청...청약증거금 2.64조 원 집계
- ▶ 오는 3월 7일 코스닥 상장...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리딩기업 목표로 도약

<2023-02-23>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대표이사 백준현)가 지난 22~23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청약경쟁률이 1,030.65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2.64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청약 건수는 123,578건을 기록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앞서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16,000원~20,000원)를 초과한 2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상장을 주관한 신영증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효율 스펙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자람테크놀로지의 미래 성장 전망이 밝을 것이라 보고 청약에 적극 참여해 주셨다"고 전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 제품별 최적화된 프로세서 자체 설계 능력 ▲세계도 인정한 초전력 설계 기술과 고정밀 타이밍 프로토콜 기술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고객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통신 시장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빠른 매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유입되는 공모자금은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와 R&D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대표이사는 "수요예측에 이어 자람테크놀로지의 미래가치와 성장가능성에 믿음을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람테크놀로지의 강점인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개발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좋은 실적을 만들어 투자자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27일 납입을 거쳐 다음달 3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끝-